

초일류 광융합 기술개발과 토탈 솔루션 제공에 주력

김선호 제 4대 한국광기술원장, 지난 7월 9일 취임

한국광기술원 4대 원장에 김선호 박사(58)가 지난 7월 9일 취임했다.

김원장은 "초일류 광융합 기술개발과 토탈 솔루션 제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광산업 기술혁신 지원기관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가겠다"면서 "한국광기술원의 위상과 역할이 광주 광클러스터를 뛰어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무궁무진한 광융합분야로 업무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어떠한 일을 하든 항상 그 초점은 사업화에 맞추고 고객인 기업이 감동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광주 광클러스터에 대한 평가는.

A 10여년전 불모지나 다름없었으나 이제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LED분야를 필두로 400개에 가까운 광 관련 기업들이 활발히 생산활동을 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광클러스터로 성장했다. 이것은 광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했던 광주의 현명한 선택과 기술개발 및 생산 활동에 밤낮 없었던 광클러스터의 산·학·연 관계자분들의 땀방울이 일궈낸 소중한 결과라 생각한다.

Q 한국광기술원의 새로운 비전은 뭔가.

A 광클러스터를 뛰어넘어 전국에 존재하는 광 관련기업들의 지원 구심체로서 수동적 지원이 아닌 '찾아가는' 역할체로 그 위상을 높여가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원천·융합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R&D 지원기관으로서 역량과 자부심을 갖춰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R&D 역량, 기업지원 수행역량을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R&D 결과물이 상용화·사업화로 연계되는 초일류 광융합 기술혁신의 R&BD 허브이자, 기업지원의 토탈 솔루션 제공자로서 한국광기술원의 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광산업 기술혁신 지원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원천·융합 기술개발로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돋움 해야”

Q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A 광클러스터 육성발전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 범위는 광주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 광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까지 뻗어나 가는데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미래를 준비해야한다는 새로운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LED를 국가 신성장동력의 번영에 올려놓은 저력을 한데 모아 신산업분야를 발굴하고, 기술사업화를 본격화하는 등 광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해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업지원 기반을 더욱 선진화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나가야 한다.

Q 한국광기술원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어떠한가.

A 광산업을 본격적으로 꽃피워야 하는 보다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광주R&D특구지정과 광역경제권선도사업 등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우호적 변화도 있다. 하지만 공공 R&D사업이 지역중심에서 중앙정부과제 중심으로 바뀌고 지경부 R&D전략기획사업단이 출범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과 엄격한 사업관리 등으로 과제 수주와 사업수행 모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과거와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 광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할 선도기업 유치 및 육성, 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광융합 기반을 통한 신산업 창출 등 시급한 현안이 속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Q 새로운 환경과 변화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은.

A 최근의 모든 변화를 발전적으로 수용해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해져야 하며, 서로 합심협력해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유일의, 그리고 최대의 광기술전문 기관에 걸맞은 목표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업수행 측면에서는 경쟁력 있는 원천 및 융합 R&D분야에 집중하고, 광산업체에 필요한 토탈 서비스 기반을 새롭게 갈고 닦아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발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면서 보다 획기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향후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광기술원 자체적인 기업(벤처)을 창출하는 사업화 단계로의 성숙함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Q 전국 조직으로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위한 방안은.

A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 관련부처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광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전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광산업 관련 국제 기술 교류의 거점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분소설치 등 전국의 광 관련업체 접근성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광클러스터 상생발전 토대 구축과 고객 만족서비스
체제도 구축”

Q 한국광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원칙은 뭔가.

A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효율의 극대화에 맞출 것이다.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이 큰 분야로 역량을 집중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로 특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연계강화를 통한 기술개발·시험평가·시험생산·창업보육 등 일괄지원 기능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기업지원은 현장을 파고들어 업계와 호흡을 같이 하는 현장 맞춤형 지원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기업 현장의 기술 관련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원 부서간 협력지원은 물론 타 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Q 광관련 유관기관의 상생발전 대책은.

A 한국광기술원이 광클러스터 발전을 적극 주도해 상생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국 관련 산학연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근의 광산업 발전 호기를 최대한 활용한 상생·재도약 방안도 마련하겠다.

Q 조직운영의 변화는.

A 전국 광산업체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광클러스터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등에 집중력을 보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특성상 매우 필요한 사업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지원 등 사업수행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목표·교육·평가·보상을 연동하는 조직인력운용 체계를 확립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역량 강화가 최단시간 내에 자립경영을 실현하고 임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조직 창조적 필연적 과정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선행되도록 하겠다.

Q 마지막으로 인사문제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A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진취적·창의적·협조적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또한 신속하고 편리하며 친절한 고객 만족 서비스 체제도 확립하겠다.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는 무엇보다 직원 개개인이 적재적소에서 자기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승진·전보, 연봉, 성과급 등 보상체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연계하며 차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직위공모제, 발탁승진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제도도 분위기를 만들되 반대로 업무기여도가 부진한 직원에 대한 제도적 관리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겠다.